

Henry, Carl F. *Evangelicals at the Brink of Crisis*. Waco:World book, 1967.

Henry, Paul B. *Politics for Evangelicals*. Valley Forge:Judson Press, 1974.

Kirk, Andrew. *Theology Encounters Revolution*. Downers Grove:InterVarsity, 1980.

Lindsell, Harold(ed),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Waco:Word Book, 1967.

McGavran, Donald (ed.). *The Conciliar-Evangelical-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49-1976*. Pasadena:William Carey Library, 1978.

Moberg, David. *The Great Reversal*. Philadelphia:A Holman Book, 1977.

Neuhaus, Richard. *The World Councils of Churches and Radical Chic*, New York: Ethics and Public Policy, 1977.

Norman, Edward. *Christianity and the World Order*.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rice, Wendell W. *Contemporary Problems of Evangelism*. Harrisburg:Christian Pub., 1976.

Quebedeaux, Richard. *The Worldly Evangelicals*. New York:Harper & Row, 1978.

Ramsay, Paul. *Who Speaks for the Church?* New York:Abingdon Press, 1967.

Scott, Waldron. *Bring Forth Justice*. Grand Rapids:Eerdmans, 1980.

Verkuyl, J.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Eerdmans, 1978.

Vicedom, G. *The Mission of God*. St. Louis:Concordia, 1965.

WCC. *The Church for Others*. Geneva:WCC, 1968.

Webber, Robert and Bloesch, Donald. *The Orthodox Evangelicals*. New York:Thomas Nelson, 1978.

Wells, D, F. and Woodbridge, J. D. (ed.), *The Evangelicals*. Grand Rapids:Baker Book, 1975.

바빙크, J. H. *선교학개론* 전호진역, 서울:성광문화사, 1980.

르웨이브, E. W. *암스테르담에서 나이로비대회까지* 전호진역, 서울: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스토트, J. *현대기독교선교* 김명혁역, 서울:성광문화사, 1981.

소비크, A. *오늘의 구원* 박근원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교육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者と 배우는 者

金 龍 燮*

◇ 目 次 ◇

I. 序 論

II. 가르치는 者
II-1 教育者로서의 父母
II-2 教 師

III. 배우는 者
III-1 基督教 教育에 있어서의 兒童의 位置
III-2 兒童의 本性和 教育可能性

IV. 가르치는 者と 배우는 者の 關係
-自由와 勸戒와 權威의 問題-
IV-1 現代教育의 一般的 風土
IV-2 自 由
IV-3 勸 戒
IV-4 權 威

V.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人間이 營爲하는 하나의 學으로서나 또는 行爲로서의 教育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 即 教育의

*教授

基本概念은 時代와 사람 또는 學派에 따라 여러가지로 規明되고 理解되어 왔다. 教育이란 도대체 무엇이나? 라고 하는 質問에 極히 一般的이고 原理的인 對答을 試圖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教育이란 人間(成熟者)에 依해서 人間(未成熟者)에게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加해지는 人間形成의 意圖의 行爲의 過程이요 努力의 作用이다”라는 말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極히 一般的意味에 있어서의 教育이란 人間對 人間의 行爲요 人間이 모든 關心과 活動의 唯一한 焦點이 되어 展開되는 人間 相互關係의 作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教育科學에 있어서나 教育 行爲에 있어서 核心이 되는 것은 오직 人間이요, 그리하여 人間學이야 말로 教育學 一般이나 教育哲學의 가장 重要한 領域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聖經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人間이란 스스로 生成되어 進化된 生命體도 아니요 스스로의 힘으로 生을 얻고 그 生을 營爲해 나갈 수 있는 存在도 아니다. 人間의 生이란 하나님의 創造의 所産이요, 하나님의 恩惠안에서만 存續될 수 있고 보람있게 營爲될 수 있다고 聖經은 밝히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基督敎의 立場에 있어서의 人間學이란 하나님을 그 中心으로 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의 形像을 지닌 者로서의 人間에 對한 教育(學)도 하나님을 그 中心에서 除去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人間對 人間의 行爲關係에서 把握되는 教育은 그 本質的 形態에 있어서 成熟한 사람 (반드시 生物學的 歷年令만을 基準으로 한 것이 아닌)과 未成熟한 사람사이에서 벌어지는 影響作用이다. 다시 말하면 教育이란 가르치는 者(父母, 教師, 牧師等)와 배우는 者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人間形成作用이라 할 수 있다. 勿論 近者에 이르러 이른바 Programed instruction이라고 불리워지는 教授-學習의 過程에 있어서는 教授機械(Teaching maching)가 가르치는 者의 役割을 代身하기도 하나 어떻든 教育의 過程은 本質的으로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와의 사이에서 展開되는 人間行爲의 影響作用임에는 틀림없다.

兒童이 하나의 人間으로 形成되어 가는 全期間동안 兒童에게 教育的인 影響을 가장 強하게 끼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父母이다. 父母는 兒童에게 形式教育(學校教育)이 加해지고 있는 期間 동안에도 兒童이 그 生活의 大部分을 보내는 家庭에서 하나의 人間으로 成長發達해 가는데 決定的 影響을 끼친다. 가르치는 者로서 父母가 兒童의 人間形成 過程에 차지하는 役割은 그 어느 누구의 그것과도 比較될 수 없다.

兒童은 特殊한 意圖와 目的과 이에 따라 計劃된 課程과 設備와 方法等이 없는 家庭에서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을 갖추지 않은 父母에 依해서만은 複雜한 文化社會의 一員으로서의 必要한 모든 要素들을 習得할 수 없다. 制度化되고 形式을 갖춘 專門機關으로서의 學校의 모든 教育機能은 專門的訓練을 통해 專門的知識과 力量을 갖춘 教育專門家인 教師에 依해 遂行된다. 教育에 있어서 가르치는 者로서의 地位와 職責을 가진 教師의 態度와 指導力量이 兒童의 人間形成 過程에 核心이 된다는 것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가르치는 者로서의 父母나 教師等の 指導努力에 따라 兒童은 하나의 人間으로 形成되어 간다. 兒童은 教育의 主體로서 거기에 教育的關心과 作用이 集中되는 焦點이다. 가르치는 者인 父母나

教師의 教育的努力이 成果를 거둘려면 그것은 배우는 者인 兒童의 特性에 맞는 効率的인 것이어야 한다. 効率的인 教育方法은 兒童에 對한 바른 理解없이 나타날 수 없다. 兒童에 對한 바른 理解는 教育의 効率을 增進시켜 그 成果를 크게 振作시킨다.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와의 사이에 造成되는 關係는 教育活動 過程의 本質과 雰圍氣를 決定한다. 教育者와 被教育者와의 사이에 造成되는 關係如何에 따라 教育이 營爲되는 雰圍氣는 強壓的(Anothoritarian)일 수도 있고, 威嚴스러운(Authoritatie)것 일 수도 있으며, 또 自由放縱的(Laisseg-faire)인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教育活動 過程의 本質이나 雰圍氣를 決定하는 要因을 우리는 세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自由(Freedom)와 勸戒(Discipline)와 權威(Authority)의 세 要素이다. 人間과 人間이 接觸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의 社會的 분위기가 造成되고 維持된다. 특히 教育에 있어서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의 사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教育者와 被教育者의 사이에 이 세 要素(Freedom, discipline, Authority)가 어떻게 作用하여 어떠한 社會的 關係가 造成되고 維持되는가에 따라 教育의 場인 家庭이나 學校教室에 있어서의 教育的 분위기와 이에서 비롯되는 教育의 効率은 크게 左右되는 것이다.

우리는 本 研究에서 教育에 있어서 父母와 教師가 차지하는 가르치는 者로서의 位置와 役割을 本質的으로 規明해 보고 배우는 者로서의 兒童의 本性을 밝혀 이에 對한 教育 可能 根據를 檢討해 본 다음 實際 教育過程에서 擡頭되는 이들 兩者(教育者-兒童)의 關係를 Freedom과 Discipline 과 Authority 와의 關連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미리 前提할것은 우리의 論議는 어디까지나 聖經의 原理를 바탕으로 해서 展開된다는 事實이다.

聖經은 勿論 科學의 教科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聖經속에서 科學的 眞理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聖經은 教育學의 教科書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볼 때 聖經은 우리에게 教育(學)의 깊고 높은 原理뿐만 아니라 教育의 實際的인 問題들에 對한 具體的이고 効率的인 Approach도 얼마든지 示唆해 주고 있음을 본다. 本研究는 聖經이 가르쳐주는 原理에 따라 教育(學)의 核心的인 領域들中 몇몇 分野에 對해 究明하여 教育(學)에 하나의 새로운 基督的인 接近策을 模索해보고자 함을 課題로 하고 있다.

II. 가르치는 者

II-1 教育者로서의 父母

가장 基本的이고 本質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教育은 家庭에 父母에 依해 이루어진다. “教育者에 對해 말할진데 무엇보다도 먼저 父母들을 生覺하는 것이 當然하다. 많은 境遇에 우리는 教育者라 할때 父母들만을 生覺하기도 한다”(When we speak of educators, it stands to reason that in the first place we think of parents; in many instances we think of them exclusively)¹⁾라고 Waterink는 말하고 있다. 만일 教育을 成熟한 사랑으로 부터 뚜렷

1) Waterink, J., 1954,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 52

한 形成的 意圖에 따라 참된 人間이 되도록 未成熟한 者에게 加해지는 一生동안에 걸친 影響作用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教育은 人間の 發達段階의 初期부터 始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教育은 家庭에서 父母에 依해 이루어지는 것임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兒童이 자라서 教會 主日學校나 學校等 制度化된 教育機關에서 形式教育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러한 教育機關에서의 形式教育을 다 마친 뒤에 까지도 家庭과 父母는 如前히 子女의 人間教育에 가장 根本的이고 本質的인 形成的 影響을 發揮하는 것이다. 이는 그 子女가 家庭을 이루어 獨立하여 父母의 슬하를 떠날때 까지 繼續된다. 兒童을 하나의 成熟한 人間으로 養育함에 있어서 父母가 차지하는 教育的 役割은 그 누구에게도 比較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教育機關이나 教育擔當者의 形成的影響이 兒童의 人間形成에 아무리 強하다 할지라도 父母의 그것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兒童을 하나의 成熟한 人格者로 養育하고 形成하는 가장 基本的이고 決定的인 影響은 家庭에서 父母에 依해 行使되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影響들은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副次的인 것에 不過하다.

教育을 養育(Nurturing)으로 定義한 Waterink는 이 概念(教育-養育)을 父母와 子女間的 關係의 範圍속에 局限시키려 試圖했다. Waterink에 依하면 참된 教育은 父母에 依한 子女의 養育에 嚴格히 制限되어야 한다고 한다.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教育이란 養育의 過程 (The process of nurturing)으로서 이는 父母와 子女와의 사이에서만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Waterink의 立場이다.²⁾ 따라서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教育(養育)은 一生동안의 過程일수는 없으며 이는 父母에 依한 子女養育에 局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父母와 子女와의 關係는 하나님께서 定해주신 特殊한 契約에 依한 유대로서 이러한 유대적 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父母들에게 그들의 子女들을 바로 教育해야 할 責任을 賦課해주셨다. 신명기 6 : 7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 했고, 에베소 6 : 4에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父母의 子女教育에 對한 責任을 強調하고 있다. Waterink에 依하면 하나님이 定해주신 父母와 子女사이의 特殊한 契約의 유대관계를 缺如한 다른 모든 人間關係에서 이루어지는 教育(養育)이란 名目에 不過하다 한다. 참된 教育은 하나님이 定해주신 父母와 子女사이의 契約關係에서만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Waterink의 見解이다.

父母의 子女에 對한 教育的 使命은 하나님이 賦與해주신 神聖한 것이다. 따라서 教育에 있어서의 父母의 子女에 對한 固有한 權威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聖經原理에 비추어 볼때 兒童의 養育에 責任을 지고 있는 다른 모든 教育機關들이나 教育擔當자들이 保有하고 있는 權威는 하나님으로부터 賦與받은 父母의 權威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또

2) Waterink, J., 1958, *Theorie der Opvoeding*, Kampen, Y. H. Kok N. V., p. 11~21; 1961, *Keur uit de verspreide geschriften*, Groningen, J. B. Wolters, p. 1~30 (quoted and remarked in De Graaf,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pp. 95, 99)

父母의 權威를 代身하는 것에 不過하다. Waterink의 教育에 對한 좁은 見解에서 보면 學校나 教師와 같은 다른 모든 教育機關이나 教育擔當者들은 家庭과 父母의 延長에 不過하다.

우리는 教育의 概念을 父母와 子女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行爲過程으로만 局限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契約의 유대로 맺어 주신 이 父母對 子女의 關係에서 벌어지는 形成的 影響은 教育 或은 教育的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形態의 行爲過程의 模型임에는 틀림없다.

父母와 子女사이의 紐帶關係는 사랑과 理解와 信賴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自己 拋棄(Self-giving) 등에 依해 特徵 지워진다. 이러한 特徵的인 關係作用을 통해서 次元높은 教育的 感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固有한 紐帶關係가 없을 때 父母對 子女의 關係는 하나의 動物的인 것에 不過할 것이요 이와 같은 關係에서 次元높은 人間形成 作用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勿論 父母와 子女의 유대관계의 基礎는 本質的으로 兩者의 生物學的인 連帶와 이에서 비롯되는 自然的 衝動性에 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父母와 子女사이의 固有한 유대관계를 維持시켜 주는 것은 單純한 生物學的 連帶나 自然衝動性 以上の 것이다. 이와 같은 固有한 父母對 子女關係의 特性이 없을 때엔 子女에 對한 父母의 사랑이나 子女의 父母에 對한 順從과 尊敬은 그 참 意味를 喪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動物의 世界에도 種族間的 사랑이 있고 自己供與(Self-giving)가 있기 때문이다.

父母들은 “오직 주의 教養과 訓戒로 養育하라”³⁾ 하신 特別한 命令에 따라 하나님의 形像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契約의 子女들을 教育할 使命을 하나님께로부터 賦與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養育의 責任을 賦與받은 子女들은 單純한 生物學的 有機體이거나 社會的 動物일 수는 없다. 그들은 各己 獨立된 人格體요 하나님의 形像이요 또 하나님의 形像을 지닌 者들인 것이다. 父母들은 이들을 참되게 養育할 權利와 義務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의 子女는 비록 生物學的으로는 우리의 것일수 있을지 모르나 窮局的으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養育과 訓戒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所有인 것이다. 그러므로 父母는 子女들을 教育함에 있어서 自身들이 기뻐하는 뜻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教育해야 한다. 契約의 子女들을 教育함에 있어 父母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靈魂을 敬畏해야 한다. 聖經原理에 비추어 볼때 父母의 子女에 對한 教育은 決코 強壓的이고 橫暴스러운(Tyrannical) 것일수도, 또 自由放任的(Laissez-faire)인 것일수도 없다. 父母의 子女教育은 어디까지나 威嚴있게(Authoritatively) 行해져야 한다. 子女教育에 있어서 行使用할 수 있는 父母의 權威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同時에 하나님께서 委託 해주신 것이다. 따라서 子女教育에 있어서 父母는 事實上 하나님의 權威를 代行하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만 우리는 父母와 子女와의 紐帶에서 하나님과 人間사이의 宗教的 關係의 原형을 볼 수 있고, 教育은 이러한 宗教的 關係에서 비로서 그 참된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네 父母를 공경하라”고 한 第五戒命은 하나님께서 子女에게 주신 命令이다. 그러나 이 戒

3) 엠 6 : 4

命에 對한 子女의 服從은 父母가 그들의 子女를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尊貴한 遺産으로 보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賦與해주시는 참된 生의 可能性과 効用性을 發見할 때 비로서 期待될 수 있는 것이다.⁴⁾

II-2. 教 師

制度化된 (Institutionalized) 教育에 있어서 教師가 차지하는 位置와 役割과 機能은 實로 莫重하다. 教師없이 學校教育은 아무것도 成就하지 못한다. 國家나 教育委員會나 學校나 그 밖의 모든 教育機關에 依해 計劃되고 마련된 모든 教育目標나 政策이나 Program은 事實 教師에 依해 履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專門人으로서의 教師의 資質이나 態度나 使命感等이 教育 自體의 質을 決定하고 教育目的이나 政策이나 Program 등의 成就度を 決定한다고 하는 事實은 自明하다. 現代教育에 있어서의 教師의 地位에 對한 典型的인 見解자 Hylkema에 依해 다음과 같이 表明되었다.

"The teacher is not of the school, but is the center of it. What the school is, what it stands for, what it means to the child and will continue to mean to the young life that has been nurtured in it, depends almost entirely upon the man or woman under whose guidance the child makes his way from day to day."⁵⁾

自身の 役割을 履行함에 있어서의 教師의 一般的 態度는 學校에서 形成의 時期를 보내고 있는 兒童의 人間形成에 至대한 影響을 끼친다. 世俗教育이나 基督教育을 莫論하고 未來의 國家 社會의 市民이요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될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指導하는 教師의 地位와 役割의 重要性은 教育行爲의 成功的인 結實을 爲해 眞摯하게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Byrne 教授는 世俗教育에 있어서의 典型的인 教師觀과 比較하여 基督敎의 立場에서의 教師觀을 披瀝했는데 그는 基督敎 教育에 있어서의 教師를 하나님의 證人이요 使者(Oracle)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hilosophically conceived, the progressive educator looks at the teacher as a guide. The reconstructionist thinks of him as a group leader. The Christian sees him as a witness an oracle of God."⁶⁾

教師職과의 關連에서 볼때, 現代教育의 가장 두드러진 趨勢中의 하나는 教師의 地位와 役割을 單純히 機能的이요 補助者的인 것으로 過少評價하는 것이리라. 現代教育, 特히 進歩主義 教育思想과 運動에 있어서는 教育의 關心事가 거의 全的으로 學生의 興味나 必要나 經驗이나 生活狀況에만 集中되어 있음은 周知하는 바이다. 教師 本然의 地位나 役割은 副次的인 것으로 또 技業的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現代 進歩主義 教育에 있어서는 教師의 役割을 뚜렷한 意

4) Hylkema, G. W., 1953, "The Great office of Teacher in Proparing the Child for the Complete Life," in C. Jaarsma,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 419

5) Hylkema, *Ibid.*, p. 415

6) Byrne, H. W., 1977,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2nd ed., Milford, Michigan, Mott Media, p. 121

圖와 目的을 가지고 兒童에게 形成的 影響을 行使하는 것으로 보지않고 兒童의 活動과 經驗을 일으키도록 그에게 動機를 주어 鼓舞하고 指導하여 効率的인 社會適應力을 培養해 줌으로써 마침내 착한 市民이 되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見解는 兒童의 本性을 本質的으로 善한 것으로 보고 人間의 自然性을 自律志向的 (Self-directing)인 것으로 보는 樂觀的인 人間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聖經的인 人間觀에 바탕을 둔 基督敎 教育의 教師觀은 世俗教育의 그것과는 다르다. 聖經은 救贖받기 以前의 人間(兒童)의 本性을 全的으로 墮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本性의 自然스러운 自體發現이나 이에 對한 教師의 補助的인 役割만으로는 兒童은 바람직한 人間으로 成熟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兒童의 自然性의 自體發現에 對한 教師의 補助 作用의 過程을 참된 教育이라고 할 수는 없다. 聖經原理에서 볼때 兒童의 自然性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強한 形成的 影響을 缺如한 作用過程을 教育이라 할 수는 없다. 基督敎 教育에 있어서는 教師를 하나님의 證人이요 使者로 보기 때문에 兒童의 人格形成에 對한 그의 役割과 機能은 決定的이다. 基督敎 教師는 兒童에게 動機를 賦與하여 活動과 經驗을 이르고 鼓舞하고 指導할 뿐 아니라 또한 兒童을 信仰的인 雰圍氣속에서 信仰的인 方法으로 養育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自然 世界와 바른 關係를 維持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順從의 生을 營爲하는 온전한 人間으로 成熟케 하는 任務를 遂行하는 者이다. 이렇게 볼때 基督敎 教師는 窮局的으로 兒童의 自然的인 成長發達을 돕는 單純한 補助者가 아니라 信仰으로 그의 全人格의 形成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치는 指導者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말할 때 公教育에 있어서는 教師는 學生들과 自身の 專門職에 對해 責任이 있고 同時에 學生들의 父母들과 社會에 對해 責任이 있다. 教師는 子女를 養育하는 父母의 任務를 代行하는 父母役割의 延長遂行者라 할 수 있고 그들을 成熟한 人格者로 教育하는 責任을 委任 받은 父母代身役割을 하는 (Loco parentis) 特殊한 專門人이다. 뿐만 아니라 教師는 社會의 人物로서 社會的인 責任을 지닌 者이다. 이 社會的인 責任은 一定한 期間內에 어떠한 새로운 文化 傳統이나 社會秩序를 創造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勿論 學校와 教師가 지닌 役割의 相當한 部分이 社會文化의 傳統과 價値體系를 保存하고 改革하고 創造하는데 있는 것은 明確한 事實이다. 그러나 教師의 社會的인 責任은 무엇보다도 未成熟한 兒童들을 社會에 寄與할 수 있는 有能한 人格者로 形成시키는 課業에 功獻함을 通해서 遂行되는 것이다.

基督敎 教師의 責任은 一般公教育에 있어서의 教師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는 말할 것도 없이 父母와 學生에 對해 그리고 自身の 專門職에 對해 責任이 있다. 그의 社會的인 責任 또한 莫重하다. 그러나 基督敎 教師는 그 무엇에 對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 責任이 있다. 하나님의 證人이요 使者로서 그는 兒童의 身體的, 知的, 情緒的, 道德的, 社會的인 發達에 對해서 뿐만 아니라 靈的인 發達에 對한 責任도 지고 있는 것이다. Byrne 教授의 말과 같이 "基督敎 教師에게

7) *Ibid.*, p. 124 (It is not mere improvement of personality which is needed in Christian teaching; it is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heart and life which leads to a vastly different philosophy of life. Where such an experience is absent... it will certainly for short of the spiritual and Christian tasks involved)

必要的 것은 單純한 人間性的 改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과 生의 完全한 變化로서... 그와 같은 體驗이 缺如되었을 때 그 教育은 必然코 基督教 教育 固有的 靈의 課業을 缺하게 되는 것이다.” 基督教 教師에게 있어서 兒童을 靈적으로 養育해야 할 하나님께 對한 責任은 다른 어떠한 責任보다도 더 重要하다.

이러한 莫重한 課業을 履行해 감에 있어서 基督教 教師에게는 여러가지 自覺치 않으면 안될 要素들이 있다. 가장 重要的 要素는 우선 自身の 教師職 自體에 對한 바른 認識이다. 聖經的인 立場에서 보면 教師의 職責이나 役割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教師職을 主任께서 直接 賦與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或은 使徒로, 或은 先知者로, 或은 福音傳하는 者로, 或은 牧師와 教師로 주셨으니”⁸⁾ 바울은 또 教師職을 다른 職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構成하는 肢體中 하나로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肢體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恩惠대로 받은 恩賜가 各各 다르니 或 豫言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或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或 가르치는 者면 가르치는 일로...”⁹⁾ 가르치는 者의 職責과 權威에 對해서는 예수님도 直接 言及하신바 있다. 昇天하실때 예수님은 弟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權勢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族屬으로 弟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聖靈의 이름으로 洗禮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¹⁰⁾ 教師職에 關한 聖經의 여러가지 示唆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이 教師의 地位와 役割의 重要함을 더욱 分明히 깨닫게 된다. 바울은 가르치는 일을 말씀 證據나 다름없는 信者의 重要的 任務로 強調하여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勸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着念하라.”¹¹⁾ 했고, 또 “네 自身을 삼가고 가르치는 일에 留意하라.”¹²⁾ 고 분부하고 있다. 바울은 自身の 福音傳하는 者와 使徒로서의 職責과 아울러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職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고 “이를 爲하여 내가 傳播하는 者와 使徒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眞理안에서 내가 異邦人의 스승이 되었노라.”¹³⁾ 고 宣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教師가 主께서 맡겨준 職責을 참되게 履行하려 할때 그에게 無關心하거나 그를 放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同役者인 우리¹⁴⁾ 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基督教 教師는 自身の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契約의 子女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人格者로 養育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聖靈으로 함께 하실때 참된 基督教 教育은 可能的인 것이다. 基督教 教師는 비유컨대 씨뿌리는 者에 不過하다. 人間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등 아무리 많은 受 苦를 할지라도 植物을 자라게 할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비와 空氣와 太陽빛을 주시지 않는

8) 엡 4 : 11
9) 롬 12 : 5 - 7
10) 마 28 : 18 - 20
11) 딤후 4 : 13
12) 딤후 4 : 16
13) 딤후 2 : 7
14) 고전 3 : 9

限 人間의 受苦만으로 植物은 자라지 않는다. 植物을 자라게 하는 이는 窮局的으로 하나님이 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¹⁵⁾ 라고한 바울의 말은 教育狀況에도 그대로 適用되는 眞理이다. 基督教 教師는 씨뿌리는 者의 境遇처럼 홀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 教育의 過程에서 그가 하는 일은 必要的인 教育의 環境과 課程과 道具材料와 方法等을 갖추어 提供하고 運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兒童들의 모든 方面에 걸친 成長과 發達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教師의 課業은 모든 可能的인 條件들을 具備하여 効率的으로 運營(用)하는 것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生命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 重生된 人格者의 養成이라고 하는 基督教 教育의 窮局的인 目的은 하나님께서 聖靈으로 함께 하지 않는 限 人間 教師의 힘만으로는 實現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教育이 成功을 거둘려면 무엇보다도 教師職이 바로 認識되고 効率的으로 履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教師職과 關連하여 몇가지 確認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教師의 地位와 職責과의 關連에서 바로 認識되고 尊重되어야 할 첫째 要件은 權威의 概念이다. 아마도 이 權威의 概念은 現代 教育에 있어서 가장 等閑視되고 있는 要因中 하나일 것이다. 教師職을 하나님께서 直接 맡겨준 것으로 보는 우리의 基督教 教師觀에 있어서는 이 權威의 問題는 決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現代 教育(世俗 教育이나 宗教 教育을 莫論하고)의 가장 두드러진 弱點中의 하나가 바로 이 權威의 喪失과 不在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未成熟者를 참된 人間으로 形成하는 過程인 教育은 決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人間 行爲이다. 이 職責을 遂行하는 者의 地位나 役割은 그 遂行者 自身이나 教育을 받는 兒童이나 그 父母나 一般人들에 依해 마땅히 바로 認識되고 尊重되어야 한다.

• 教師의 權威가 認識되고 尊重되어야 한다는 말은 決코 教師에게 權威를 無分別하게 行使하여 被教育者로부터 無條件的인 服從을 強要할 수 있는 權利가 保障되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權威의 濫用은 權威의 참된 目的과 教授-學習의 過程을 망치게 한다. 滿足할 만한 教育成果가 維持되는 限 이 權威는 덜 行使되면 될수록 教師와 學生의 關係를 부드럽게 해주고 가르치는 者로서의 教師의 指導 効率을 增大시켜 준다. Hylkema는 이 點에 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This authority is certainly not to be relinquished or neglected. Neither is it to be marked a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evil. But it must be made vital by being incorporated in the the teacher's ability for real leadership.”¹⁶⁾

이 權威의 問題에 對해서는 後에 仔細히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로써 이에 關한 우리의 論議를 맺고자 한다.

教師의 바람직한 職責 遂行에 있어서는 안될 또 다른 要件은 教師 自身の 學生에 對한 理解

15) 고전 3 : 6
16) Hylkema, *op. cit.*, p. 416 - 417

와 關心과 사랑이다. 兒童에 對한 教師의 바른 理解와 깊은 關心과 뜨거운 사랑없이는 참된 教育이란 있을 수 없다. 教師에게 맡겨진 兒童은 單純한 生物學的인 有機體나 實驗에 있어서의 實驗操作의 對象인 資料나 物體가 아니다. 集團속에 흡수된 中性的客體도 아니다. 兒童은 身體와 精神의 모든 領域에 걸쳐 固有한 特徵의 機能을 所有한 하나의 人間(Person)이다. 그는 靈魂을 지닌 存在로서 하나님께 모든 創造의 면류관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形像이요, 또 이 形像을 지닌 者이다. 그는 身體的, 精神의, 社會的, 道德的 實體인 全人(Whole person)으로 存在하고, 生活하고, 成長하고, 成熟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靈的 實存으로서 靈的으로 生活하고 成熟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兒童에게 나면서 부터 하나의 人間으로 發達할 수 있는 自然的可能性을 賦與해 주셨다.¹⁷⁾ 이 可能性의 自體發現으로 兒童은 成長한다. 이는 人間이 受胎時에 이미 賦與받은 自然的素質로서 우리는 이를 遺傳的素質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生得的인 內的自然性的 自體發現만으로는 兒童은 사람(Person)이 될 수 없다. 兒童이 하나의 人間으로 發達해 가는 過程에는 遺傳的素質의 自然發現과 함께 外部로 부터 意圖的으로 加해지는 環境的(物理的, 人爲的) 힘의 作用도 또한 必要하다. 이는 學習(教育)이라고 일컬어지는 局面이다. 前者(Nature-Keredity-Man-Becoming)와 後者(Nurture-learning-Man-Making)는 사람이 動物아닌 사람으로 形成되어 가는데 있어서 모두 不可缺하다. 兩者中 그 어느 한 局面이 缺如될 때 兒童은 하나의 人間으로 形成될 수 없다.

發達의 每段階마다 兒童은 固有한 特性을 가지고 行動하고 자라간다. 훌륭한 教師는 兒童의 長點뿐 아니라 短點도 理解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理解한다. 그의 現在뿐 아니라 過去와 그리고 未來의 可能性도 理解하려 한다. 그가 願하는 것 뿐 아니라 願치 않는 것도 理解하려 한다. 이러한 理解는 但只 教育心理學이나 兒童心理學의 研究程度의 努力으로 可能한 것은 아니다. 自身이 맡은 兒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契約의 子女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끊임없이 깊은 關心을 쏟을 때 兒童에 對한 教師의 참된 理解는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理解없이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教育이란 있을 수 없다. 教師는 自身의 教師로서의 權威가 兒童에 對한 理解와 關心으로 채워진 마음(Heart)으로부터 行使될 때 兒童으로부터 順從스러운 反應을 期待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깊은 理解와 尊敬의 順從으로 特徵지워지는 教師-學生의 바른 關係가 造成되고 維持될 때 비로소 教師의 指導努力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理解와 關心이 教育專門家로서의 教師自身에게 向하게 될 때 教師의 人生과 世界에 對한 視野는 勿論 自身의 職務에 對한 視野도 넓혀진다. 教師의 自身의 任務와 職責에 對한 참된 理解와 關心은 그로하여금 教師職의 莫重함에 覺醒케 하고 그 職責遂行에 熱情을 쏟게

17) Jaarsma는 이를 發達衝動(developmental urge)이라고 부르고 있다. Jaarsma,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p. 308, 341; 1961,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p. 71f, 95f 118-172

하며 同時に 自身이 從事하는 일에 親熟케 한다. 有能한 專門教師가 되는데 있어서의 前提條件은 무엇보다도 自身의 相當分野에 對한 充分한 知識과 教授技術에 對한 熟練된 能力이다. 훌륭한 教師는 自身의 專門分野뿐 아니라 다른 一般分野에 對한 새로운 Idea나 情報를 追求하는데 게으르지 않다. 知的으로, 道德的으로, 社會的으로 靈的으로, 그리고 機能的으로 持續되는 不斷한 成長은 참된 教師의 特徵이어야 한다. 自身의 指導下에 있는 兒童에게서 成長을 期待할진데 教師는 하나님의 子女로서 또 專門人으로서 먼저 自身의 存在와 行爲의 全領域에 걸쳐 成長을 中斷해서는 안된다.

兒童에 對한 教師의 理解와 關心이 意味를 갖는 것은 이 理解와 關心이 마음속으로 부터의 사랑의 動機에서 일어나오는 境遇에 限함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거꾸로 表現하면 사랑은 거기에서 모든 理解와 關心이 솟아나오는 源泉인 것이다. 사랑없어도 참된 理解와 關心과 그리고 참된 教師對學生의 關係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教師對學生의 正當한 關係가 없는 곳에 참된 教育이란 있을 수 없다. 略言컨데, 教師의 學生에 對한 사랑에 對해서는 다른 모든 人間事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前書13章에 記錄된 바울의 사랑의 敎訓으로 足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方言과 天使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팽가리가 되고”(1), “내가 豫言하는 能이 있어 모든 秘密과 모든 知識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2) ...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8) ... 그렇다. 學生을 참으로 사랑하는 教師는 그의 教育行爲에 있어서 決코 失足치 않는다. 우리의 대스승 예수님이 弟子들의 발을 씻기심은 이 사랑에서 일어나온 行爲였다. 十字架의 苦難을 當하심도 人類에 對한 바로 이 사랑의 發露에서다. 教師의 學生에 對한 사랑에 對해 말할진데 人類의 대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것 以上 더 무슨 말이 必要하겠는가!

Ⅲ. 배우는 者

Ⅲ-1. 基督教教育에 있어서의 兒童(人間)의 位置

그동안의 우리의 論議에서 學生이 모든 教育的關心과 努力들이 集中되어야 할 中心이라는 事實이 밝혀진 줄 안다. 現代教育, 特히 進歩主義系統의 教育觀에 있어서는 兒童이 그의 經驗과 生活狀況과의 關連에서 모든 教育行爲와 過程에서 唯一한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教育을 但只 人間對人間의 關係에서 展開되는 行爲過程으로만 여기는 一般 世俗教育의 立場에서 보는 限 이러한 兒童中心主義는 至當한 原理이다. 그러나 聖經에 바탕을 둔 基督教人間觀과 哲學위에서 펼쳐지는 基督教教育에 있어서는 兒童의 興味나 必要나 經驗이나 生活狀況等を 教育의 唯一한 Motive로 보는 兒童唯一主義나 兒童中心主義는 그대로 認定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教育學 또는 教育哲學의 基礎가 되어야 할 聖經의 人間觀은 兒童의 自然성을 本質的으로 善한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兒童을 스스로 存在하고 스스

로 生의 方向과 意義를 決定하는 自律的實存으로 보지 않는다. 兒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形像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의 主權的統治와 引導下에서만 生을 營爲할수 있는 存在인 것이다. 基督敎의立場, 特히 改革信仰의 立場에서 볼 때 敎育을 包含한 모든 人間의 行爲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中心으로 할 때 비로서 그 참된 意味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저 生命의 源泉이 主께 있어오니 主의 光明中에 우리가 光明을 보리이다.”¹⁸⁾ 고 한 말씀 그대로 人間의 모든 企業은, 特히 兒童을 참된 人間으로 形成하려는 모든 敎育的 努力은 生命의 源泉이신 하나님안에서 展開될 때 비로소 참된 것일수 있다. 聖經的 人間觀에 立脚한 基督敎 敎育은 人間을 基本Motive로 하는 兒童中心主義를 根幹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中心主義를 根幹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一般 世俗敎育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이와 關連해서 Jaarsma 敎授의 말을 들어보자 :

“Not man, but the Personal God as He reveals Himself in absolute truth, is the center of the educational process, as He is of life itself. Man is not the measure of this truth, but it is His standard. It gives education a firm foundation, an unchangeable norm, an all-ruling principle, and a lofty and inspiring ideal.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of education find their point of coordination in it.”¹⁹⁾

Jaarsma는 人間中心主義의 現代敎育을 人間을 그 中心으로 함으로서 人間自體에 惡을 犯한다고 준엄하게 告發한다 :

“Modern education, which makes man the center, norm and objective of education, commits evil against man himself.”²⁰⁾

基督敎敎師는 敎育計劃을 樹立하고 決定하고 履行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啓示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健全한 聖經的 人間觀과 世界觀과 敎育觀을 갖춘 敎師라면 그의 指導下에 있는 兒童의 自然性的 自律的 發現을 過重視하여 自身の 敎師로서의 役割을 한낱 補助者的인 것으로 格下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被敎育者를 어떠한 知識이나 情報를 活入시키는 單純한 對象物로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敎育의 任務는 知的 哲學이나 情緒的 醇化나 機能的 熟達이나 社會適應性的 培養等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中心으로 한 敎育은 敎育이 지닌 이러한 모든 任務와 함께 이 보다 더 큰 目的을 成就시킨다. 하나님中心의 敎育은 人間의 生과 모든 行爲의 根源이요 原動力인 兒童의 마음(Heart)을 가장 核心的인 問題로 삼는다. 基督敎敎育의 窮局的 目標은 兒童으로 하여금 心靈(Heart, spirit, soul)의 變化로 비롯되는 重生(Regeneration)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溫全한 人格者가 되도록 身體的으로, 知的으로, 情緒的으로, 社會的으로, 倫理的으로, 그리고 靈的으로 成熟케 하는데 있는 것이다. Byrne 敎授의 다음 말은 基督敎敎育의 哲學的 根據를 밝힌 것으로 吟味될 만 하다 :

18) 시편36 : 9

19) Jaarsma, C., 1953, *op. cit.*, p. 135

20) *Ibid.*, p. 134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s Christ controlled, pupil-related, Bible-related, and socially applied. With God in control through the spirit of Christ, He must be central. All things stand in relation to God and this includes the pupil. All the influences of Christlikeness are brought to bear on the pupil in this view, making him the focus of the process.”²¹⁾

III - 2. 兒童의 本性和 敎育可能性

兒童의 本性이 本質的으로 어떠한 것이냐?의 問題는 바로 人間學의 領域에 屬하는 것으로 이는 그 自體가 獨立된 別個의 主題로서 이에 對해 徹底히 規明하려면 하나의 別個의 論文을 必要로 한다. 여기서는 人間論 自體의 徹底한 論議를 避하고 兒童의 本性이란 本 主題가 本 研究에서 차지하는 位置와 다른 主題와의 關連性을 勘案하여 그들과의 均衡調和를 考慮하면서 兒童本性이란 一般 概念的으로 어떠한 것이고 이 兒童에게 人間形成의 敎育的作用이 加해될 수 있다면 그 根據는 果然 무엇인가를 簡略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聖經에 依하면 墮落한 아담의 後裔인 모든 人間은 나면서 부터 罪의 죄사슬에 束練되어 있는 詛呪의 子息들이다.

未成熟한 兒童이라 해서 例外는 아니다. 聖經은 우리 人間을 “本質上 震怒의 子女”²²⁾ 라고 規定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罪惡中에 出生하였음이여 母親이 나를 罪中에 孕胎하였나이다.”²³⁾ 라고 詛呪스러운 人間의 本性을 밝히고 있다. 그 本性이 母胎에 孕胎되었을 때부터 罪의 착고에 묶여 있다고 하니 이러한 宿命을 겪어지고 태어난 人間(兒童)은 그 實相이 얼마나 悲慘한가! 이렇게 볼때 人間에게, 特히 兒童에게 그 어떠한 形成的 行爲를 計劃하고 加할 수 있는 所望의 余地란 全혀 있을 수 없는 듯하다. 母胎로 부터 罪의 사슬에 묶여 있고 하나님 震怒의 詛呪아래 있는 兒童은 그 實存自體에 있어서나 生에 있어서 永遠한 死亡의 구령이로 運命지워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實相이 救贖받지 않은 狀態에 있는 兒童(人間)의 本性에 對해 聖經이 가르치고 있는 內容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詛呪스러운 實相이 우리 人間(兒童)의 本性이나 運命에 對해 聖經이 말하고 있는 全部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十字架의 犧牲을 통해서 우리 人類를 救贖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世上을 이처럼 사랑하사 獨生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者마다 滅亡치 않고 永生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²⁴⁾ 고 우리 主任께서는 罪의 詛呪아래 있는 우리 人類에게 所望의 宣言을 해주셨 바울은 救贖받은 우리 子女의 狀態를 기록하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²⁵⁾

聖經의 가르침에서 볼때 人間(兒童)의 本性和 運命엔 두가지 側面이 含蓄的으로 示唆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悲觀主義的側面이요 또 다른 하나는 樂觀主義的側面이다. 이를

21) Byrne, *op. cit.* p. 129

22) 엡 2 : 3

23) 시편51 : 5

24) 요 3 : 16

25) 고전 7 : 14,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子女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기록하니라!”

否定的으로 表現하면 人間(兒童)의 本性에 對한 聖經의 見解는 悲觀主義的인 것도 아니요 또 樂觀主義的인 것도 아니다. 다시 이를 反對로 表現하면 兒童의 本性和 運命은 悲觀的인 것이기도 하고 同時에 樂觀主義的이기도 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하면 兒童(人間)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죄로 罪졌음을 받지 않는 限에는(罪졌음 받기 以前에는) 하나님의 震怒의 詛呪에 宿命지워져 있는 絶望의 實存임을 意味하는 말이다. 예수를 自身의 救主로 믿고 罪사함을 받을때(받고 난 後에) 兒童은 비로서 하나님의 義의 子女가 되어 永遠한 生命이 保障되는 푸른 草場으로 招待된다. 여기엔 中間立場이란 있을 수 없다. 兒童(人間)에게 열려 있는 길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의 한 길 뿐이다. 中間길이란 있을 수 없다. 兒童(人間)은 하나님의 子女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子女가 되든지 해야 한다. 이것이 人間(兒童)의 本性和 運命에 關連해서 聖經이 明示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이다.

兒童의 本性和 運命에 關해서 明示하고 있는 以上の 聖經의 眞理는 教育에 어떠한 意味(Implication)를 갖는가? 한 말로 要約컨데 兒童의 本性和 運命의 이러한 實相이야 말로 거기에 教育行爲가 作用할수 있고 그로부터 人間形成作用이 始作될수 있는 Moment가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萬若 人間性이 一部 사람들이 生覺하고 있는대로 本來 完全하고 善한 것이어서 그 自然性의 自律的發現만으로 바람직한 人間이 된다고 할때 여기엔 本質的인 教育이란 別로 必要치 않을 것이다. 反對로 兒童이 그 어떠한 後天的作用에도 不拘하고 母胎로 부터 타고난 罪의 詛呪로 永遠히 死亡의 골짜기로 行하도록 宿命지워져 있다고 할때 여기에도 또한 意圖的으로 加해지는 그 어떠한 教育的努力도 別 効用이 없을 것이다. 타고 난 罪가 朱紅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정결케 될 수 있음을 明示하는 聖經의 人間觀의 所望下에서 兒童에 對한 教育行爲는 비로소 可能的인 것이요 意味를 갖는 것이다. 聖經原理에서 볼 때 教育은 兒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의 聯合을 통해서 옛 사람이 變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窮局的인 目的으로 한다. 낡은 사람을 벗어버리고 身體的으로 知的으로, 情緒的으로, 社會的으로, 倫理的으로 그리고 靈的으로 착하고 有能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과 物質世界의 사이에 바른 關係를 維持하면서 하나님께 榮光돌리는 참된 삶을 營爲하는 成熟한 人格者를 養育하는 높은 目的이야말로 基督教教育의 目的이요, 同時에 모든 教育의 窮局的인 目的이어야 한다.

IV.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의 關係

- 教育에 있어서의 自由와 勸戒와 權威의 問題 -

IV.- 1. 現代教育의 一般의 風土

現代라고 하는 時代와 生은 여러가지 特徵들을 가지고 있다. 그 中 하나는 國家 社會의 安寧福祉와 秩序가 그토록 強調되어 國家 社會를 爲한 個人的인 犧生과 奉仕가 切實히 要請되는 特殊한 時代의 狀況속에서 現代教育思潮와 運動의 가장 支配的이고 影響力있는 趨勢가 無

批判的인 個人伸長의 方向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 相互矛盾性에 있는 것 같다.

兒童學生에 對한 지나친 強調는 그의 生得의 自然性의 法則에 따라 그에게 最大限의 自由로운 發達을 保障해 준다고 하는 美名下에 그의 當場의(immediate) 興味와 必要와 經驗과 生活狀況만을 내세워 마친내는 教師의 固有한 地位와 形成的役割을 格下시키거나 喪失시키는 結果를 낳고야 말았다. 現代教育 또는 教育哲學-특히 Deway의인-의 基本立場은 Bantock 教授가 指摘했듯이 "Rousseau, Froebel, Pestalozzi 系列의 教育思想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들의 功獻은 '兒童에 對한 教育은 그 自身의 自然性에 付應하도록 그에게 自由로운 發達을 許容해주는 것이야 한다' 라는 命題로 要約될 수 있다."²⁶⁾

이러한 立場에 있어서의 兒童學生은 그 自身이 基準이요 規範이다. 다시말하면 教育이 따라야할 基準과 規範은 바로 學生自身이다. 오늘의 이러한 兒童中心教育이 지닌 커다란 問題中의 하나는 未成熟한 兒童을 그 自身의 運命의 決定者로 만들려는 傾向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傾向에 대해 Bantock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y (Progressive Thinkers) push the notion of the 'Creativity' (a key word) of individual mind to its uttermost limits so that development is seen as the result of the spontaneous activity of the inner being rather than the formative power exercised by any outside authority. The child is to grow, not to be moulded. Hence, the exercise of outside authority, in whatever form, is to be reduced to an absolute minimum."²⁸⁾

이러한 哲學的傾向은 現代教育에 否正의 影響을 끼쳐 一般的인 弛緩現狀을 造成하는데 寄與했고 그 余波로 教師의 固有한 役割과 責任은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實用主義的인 教育哲學에 鼓舞되어 教師의 役割과 責任은 兒童에게 當場의 興味와 必要와 經驗과 生活狀況에 맞는 適切한 環境을 마련해 줌으로써 兒童의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機能의 効用性이나 增進시켜주는 定度の 次元으로 格下되고 있다. 그리하여 學習이란 항상 當場의 經驗이나 生活에 나타나는 結果요, 이러한 結果를 造成해가는 過程定度로만 認識되기에 이르렀다. 現代教育의 이와 같은 一般的 傾向은 마친내 精神的指導力의 不在는 勿論 知的, 道德的指導力의 無政府狀態를 빚어내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一般的風土속에서 兒童들은 事實들에 對해서나 人生과 世界에 對한 全般的이고 統一的인 洞察力을 獲得하여 全人으로 成熟해가기 보다는 機能的으로 그리고 枝葉的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의 關係를 規定짓고 教育의 質과 風土를 決定하는 세 要因, 即, Freedom과 discipline과 Authority의 行使에 均衡과 調和가 바람직스럽게 維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側面에서 우리는 그 原因에 對한 우리의 診斷과 치유에의 처방이 可

26) Bantock, G. H., 1970, *Freedom and Authority in Education*, London, Farber & Farber Ltd., p. 59: "Rousseau-Froebel-Pestalozzi line of educational thought—a line whose contribution can be summed up in the proposition 'a child's education ought to permit its freedom of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laws of its own nature...'"

27) *Ibid.*, p. 64

28) *Ibid.*, p. 59~60

能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IV - 2. 自由(Freedom)

本主題의 모든局面에 對해 體系的이고 徹底한 論議를 길게 展開하려는 것이 우리의 意圖가 아니다. 우리의 主된 關心은 教育의 過程에 뚜렷한 關連이 있는 自由의 局面에만 모두어질 것임을 前提해 두는 바이다.

自由(Freedom)란 무엇인가? “自由”라는 名詞은 一般的으로 民主主義理念과 그 實行과의 關連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大概 政治的觀念이나 一般社會的關係(Context)에서 使用되는 抽象的인 名詞이다. 사람들은 自由의 概念을 普通 그 무엇으로부터의 自由(Freedom from…), 即, 그들을 拘束하고 制約하는 外的條件으로부터의 풀려남이요, 무엇이든 自身들이 願하는대로 마음대로 選擇하고 行動하는, 그러한 素朴한 意味로 생각하는 傾向이 없지 않다. 自由에 對한 이러한 誤解는 社會構成員들에게 無節制한 行動을 刺戟하여 한 社會를 쉽게 混沌속으로 몰아 넣을수 있다. 現代社會, 特히, 오늘의 學園社會가 안고 있는 問題는 그 一部分이나 自由의 概念을 한 個人의 것으로 孤立시켜 認識하려 하거나 또는 아주 좁은 社會的關連(Social context)에서 把握하고 適用하려는 그릇된 立場에서 緣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名詞 自體가 갖는 素朴한 意味에도 不拘하고 自由란 個人에게 思想이나 感情을 無制限 表現하고 個人의 自然衝動에 따라 무슨 行動이든 規制없이 할수 있도록 保障해 주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自由의 基本概念에 對해 Bantock教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All notions of ‘being’ are set in a particular context, and freedom must always be relative… for a man is an individual as well as a social being; and outside himself he has duties to a super-personal set of values as well as to other people. A man must always be prepared to accept a certain amount of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others, because of a sense both of obligation and of charity.”²⁹⁾

自由란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가 人格적으로 接觸하고 社會적으로 關係하는 教育的狀況에 適用해서 考察할 때 個人의 뜻과 行爲가 個人의 마음대로 거침없이 表現되는 放縱과는 다르다.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自由란 個人의 思想, 感情의 表現이나 行爲의 選擇, 實行에 있어서 뚜렷한 限界를 前提로 한다. 自由란 Waterink教授에 依하면 모든 束縛의 斷絶(Severance of all bonds)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³⁰⁾ 教育에 있어서나 社會活動에 있어서 制約없는 自由란 있을 수 없다.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의 學生의 自由나 教師의 自由란 絕對的인 것이거나 無制約的인 것은 아니다. 이 自由란 相對的인 것으로 어느 程度의 制約을 그 속에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空中을 나르는 새의 實相에 比喩될 수 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限, 그리고 새는 空中을 날으는 限에서만 참된 自由를 누린다. 물속

29) *Ibid.*, p. 37

30) Waterink, *op. cit.*, p. 65

과 空中을 떠나서 물고기는 헤엄치는 自由를, 그리고 새는 날으는 自由를 누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이나 空中이라고 하는 一定한 制約된 環境條件을 떠나서는 물고기나 새에게 自由란 있을 수 없다. 이 單純한 比喩에 包蓄된 意味는 바로 自由의 概念에 對한 明瞭한 說明이 되는 것이다. 自由로운 물고기와 自由로운 새는 그들이 살아 있는 限 一定한 環境條件에 얽매어 있다. 이들 물고기와 새는 물과 空中에 얽매어 있는 限에 있어서만 自由를 누린다. 이때 물과 空中은 이들 물고기와 새의 生命體의 生存을 可能케 하고 그 本性을 規定하는 條件(Bonds, 束縛)이 된다. “따라서 모든 生命體에는 그 生命體의 本質에 屬하는 어떠한 制約條件이 있다.” (“Accordingly, there are certain bonds which belong to the nature of every living being.”)³¹⁾ 이 制約條件 即 束縛(bonds)이 缺如될 때 Paradoxical하게도 生命體는 自由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生命體는 그 本質에 屬하지 않는 束縛으로부터 拘束을 받을 때에만 自由를 缺如하게 되는 것이다.”

“A living creature lacks freedom only when it is bound by bonds which do not belong to its nature.”³²⁾

人間은 自身의 生의 本質을 規定하고 그 本質에 屬하는 束縛에 얽매어 있는 限 自由로운 存在이다. 假令 人間의 質의 存在樣相과 生의 方式을 規定하고 또 그 存在樣相과 生의 方式에 屬하는 衣服이라고 하는 因習의 束縛을 例로 들어 보자. 아무리 더운고 不便스러운 境遇라 할지라도 시원스럽고자 하는 人間의 自然性을 規制하는 束縛이라 할 수 있는 衣服이란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의 狀態를 自由로운 것이라 할수 있는가? 具體적으로 例를 들건데 시원해지고자 하는 自然衝動을 充足하기 爲해 벌거벗은 女人을 가리켜 自由로운 사람이라 할수 있겠는가? 衣服이라고 하는 굴레에 束縛되어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을 自由의 喪失이라 할수 있을까?

人間의 行爲의 側面에서 볼 때 自由란 매우 모호한 概念이다. 萬若 自由의 概念이 이 單語 自體의 素朴한 意味에 따라 解釋될진데, 다시말하면, 自由를 個人의 思想과 感情과 行爲 등의 無制約的인 表現이라고 하는 意味로 認識할진데, 이러한 自由를 누리는 참된 自由人은 오직 精神病者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個人의 盲目的인 衝動이 命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든 選擇하고 表現하고 行動할수 있는 사람은 世上에 精神病者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自由가 絕對적으로 表現되고 行使될 경우 때로는 Paradoxical하게도 그의 行爲를 絕對적으로 拘束하지 않으면 안될 事態가 벌어지게 될 것임은 勿論이다. 모든 自由는 그것이 人間을 참된 自由人이 되게 하는 것일진데 一定한 制約과 規制(Discipline)를 그 속에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自由를 참으로 束縛하는 것은 個人의 思想과 感情과 行爲의 規制없는 (Undisciplined) 無制約的인 表現과 行爲라고 하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人間은 그 實存의 本質을 規定짓고 그 本質에 屬하는 社會的, 倫理的, 靈的規範(束縛)속에

31) *Ibid.*

32) *Ibid.*

서 살고 行動할때 自由를 누린다.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 兒童은 그의 스승(教師, 父母)과 同僚學生들과의 人格的, 社會的關係에서 벌어지는 教育의 固有한 本質을 規定짓고 이 本質에 屬하는 秩序와 規範을 따를때 自由人이 되는 것이다. 反對로 兒童은 教育의 本質을 規定하고 이 本質에 屬하는 規制要因들(Bonds)을 벗어나 제멋대로 行動할때 自由를 喪失하게 된다. 모든 兒童學生들은 이러한 自由를 適切하게 行使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教育의 本質을 規定짓지 않고 이 本質에 屬하지 않는 制約이나 束縛은 그것이 어떠한 權威로부터 賦課된 것이라 할찌라도 斷乎히 拒否할 수 있다.

이러한 自由나 또 이 自由를 누릴수 있는 權利는 窮極的으로 말할때 어떠한 人間的權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 自由는 하나님께서 創世時에 人間에게 賦與해 주신 것임을 聖經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은 人間에게 自身の 自律意志에 따라 選擇하고 行動할수 있는 自由를 주셨는바 이는 하나님께서 人間에게 課해주신 規制(Bonds)가 그 實存의 本質을 規定짓고 이 本質에 屬한 것이라는 點에서 참된 自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規定해주신 人間實存의 本質이란 人間을 除外한 모든 被造世界를 다스릴 權勢를 所有한 創造의 冕冠(The crown of creation)으로서 하나님이 定하신 規範(norm, bond)에 따라 創造者에게 順從하고 奉獻하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自意에 따라 選擇하고 行動할수 있는 自由意志를 주셨다. 그러나 人類의 始祖아담은 이 自由意志를 濫用하여 創造者께서 制定해 주신 規範(Bonds)을 侵害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自身에게 부여된 참된 自由를 喪失하고 말았다. 原罪를 包含하여 모든 罪는 하나님께서 賦與해주신 人間의 自由意志의 濫用 바로 그것이요 그 以上도 그 以下도 아니다. 그리고 이 自由意志行使의 남용은 人間으로하여금 自由 그 自體를 박탈당하게 했던 것이다. 이 原理는 過去뿐아니라 現在에도, 그리고 未來에도 變함 없는 眞理이다. 大抵, 人間은 服從과 奉獻의 生으로 特徵지워진 人間實存의 本質을 規定짓고 그 本質에 屬하는 窮極的인 規範(Bonds)인 하나님의 戒命안에 居 하는 限에 있어서 비로소 自由人이 된다. 聖經은 우리에게 이 自由를 길이 保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分明히 가르쳐 주고 있다. “眞理를 알찌기 이 眞理가 너희들 自由케 하리라”³³⁾고 우리 先任은 말씀하고 계시다.

自由의 概念은 가르침을 받는 者에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者에게도 重要한 의미를 갖는다. 父母든 教師든 가르치는 일에 從事하는 者들은 自由의 참 意味에 對해 언제나 留意치 않으면 안된다.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自由가 바로 認識되고 尊重되고 實現될때 自身들의 手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自由는 남용되지 않을 것이다. 萬若 自身들의 손아래 있는 兒童學生들이 窮極的으로 父母의 所有가 아니고(生物學的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教師의 所有도 아니라 하나님의 所有라는 眞理가 바르게 認識되고 尊重되고 實現될 때엔 그들(父母나 教師)은 兒童學生들에 對한 自身들의 가르치는 者로서의 自由의 行使에 慎重을 期하게 될것이다. 指導의 自由나 訓練의 自由나 勸戒(Disciplin)의 自由등은 萬若 그것들이 教育의 固有한 本

33) 요 8 : 32

質을 規定하고 이 本質에 屬하는 一定한 規範의 制約없이 行使될 때엔 이를 行使하는 가르치는 者를 쉽게 暴君으로 만들수 있다.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 가르치는 位置에 있는 者의 無節制한 自由의 態度나 行爲는 가르침을 받는 者의 放縱스러운 行動못지 않게 害롭다. 가르치는 者의 自由가 배우는 者에 對한 깊은 理解와 關心과 사랑에 찬 마음(Heart)에서 울어나와 行使될때 그의 指導나 訓練이나 勸戒는 참으로 教育的인 것이 될수 있고 이렇게 될때에 비로소 教育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IV - 3 勸戒(Discipline)³⁴⁾

自由에 對한 위의 論議에서 참된(教育的) 意味에 있어서의 自由는 Discipline을 前提로 한 것임이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卽 自由는 兒童學生을 放縱으로 부터 規制하여 바른 方向으로 이끌어감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바꾸어말하면 自由란 Paradoxical하게도 規制된 自由(Disciplined freedom)이었다. 被教育者에게 그의 生得的 可能性을 막힘없이 發現시키기 爲해 最大의 自由를 保障해 준다고 하는 口實아래 教師의 訓育役割(Disciplinary role)을 全的으로 等閑視한다고 하는 것은 兒童으로 하여금 그 思想, 感情의 表現과 行爲에서 放縱에 빠지게 하고, 그 結果 그에게 착고를 채워 모든 自由를 송두리채 박탈해버리는 것과 못지 않은 狀況으로 兒童을 몰고 가게 되는 것이다. 教育行爲나 過程의 效率을 振作하기 爲해서는 서로 衝突하는 것으로 보이는 兩要素(Freedom과 Discipline)는 均衡과 調和를 維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兩者의 均衡과 調和가 維持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教育의 狀況風土는 自由放縱스러운(Laissez-faire) 것일수도 있고 橫暴스럽고(Tyrannical) 威壓的(Authoritarian)인 것일수도 있는 것이다.(萬若 Freedom과 Discipline이 그 낱말이 갖는 皮相的이고 素朴한 意味 그대로 理解되고 行使될 경우엔 그러하다)

Discipline의 教育的意味는 무엇인가? Waterink教授에 依하면 Discipline에는 “抑制”하고 “束縛”한다고 하는 意味가 含蓄되어 있으나 그러나 全的으로 否定的意味만 含蓄된것은 아니라 한다. Discipline에는 學生을 옳은 方向으로 이끌어 志向하는 目標에 到達케 한다고 하는 보다 肯定的이고 積極的인 意味도 包含되어 있다. Waterink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자 :

“Discipline has reference to restraining or bridling, but not exclusively in a negative sense; discipline is also a bridle which steers in the right path... it is just because the right path must be travelled and because the direction of that path is determined by both the starting-point and the end-point, that discipline is also a means to attain that end.”³⁵⁾

Waterink는 教育的 Discipline의 基本的인 特徵을 規定하면서 이 Discipline의 目的으로 또 다른 側面을 풀이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Discipline의 窮局的目的是 兒童學生을 他人에 依한

34) Discipline은 여러가지 意味로 옮길수 있는 낱말이다. 境遇에 따라서는 訓練, 訓育, 紀綱, 懲戒, 規制 等等의 意味를 갖는 名詞와 動詞로도 쓰이고, 그 밖의 비슷한 意味로 쓰인다. 따라서 이 낱말을 한 意味로만 固定的으로 옮겨 쓰는 것은 妥當치 못하다.

35) Waterink, *op. cit.*, p. 63

Discipline을 더 이상 必要로 하지 않게 하는 境地에 이르고 스스로의 規制(Self-discipline)가 兒童自身の 躰操가 되게끔 하는 境地에 이끄는 데 있다.³⁶⁾ 兒童의 이러한 自己規制는 하나님의 말씀에 提示된 規範에 따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것(“...self-guidance according to the norms laid down in the Word of God”³⁷⁾)을 意味한다.

Waterink는 教育的意味에 있어서의 Discipline을 論함에 있어 教育者와 兒童과 教育目的의 三者의 對決을 前提要件으로 내세운다. 그에 依하면 Discipline이란 正確하게 理解할 때 배 놓을 수 없는 教育의 方便으로서 普通 懲戒措處(Disciplinary measure)따위로 表現되는 그러한 것과는 全然 다른 것이다.³⁸⁾ 가장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Discipline은 學生을 案内하고 指導하고 鍛鍊하여 바른 目標로 가게 하는 것이요, 또 Discipline은 學生에게 바른 社會的凡節과 바른 말씨와 바른 社會的行爲를 訓練시키는 모든 指導努力이 包含되는 넓은 概念으로 理解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Waterink는 그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披瀝한다:

“Discipline in its broadest sense includes all the mental, social and moral guidance, direction and training to the right and. Indeed, in this manner we include under discipline the proper regard for correct social manners, correct speech and correct behavior in society.”³⁹⁾

Jaarsma教授는 Discipline을 學習者를 바른 目標로 이끄는 作用으로서 指導(Instruction)와 必然的인 關連을 갖는 것으로 봄으로써 Waterink教授와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希臘語 Paideia가 쓰여진 行 7 : 22, 22 : 3 및 디도서 2 : 12 등의 聖經句節들을 引用하면서 Jaarsma는 이 單語에는 서로 密接히 關連되어 있는 두개의 意味 即 Instruction과 Discipline이 包含되어 있음을 指摘한다. 그리고 그는 이 Instruction과 Discipline을 學習者를 바른 目標로 이끄는 作用이란 意味로 解釋한다.⁴⁰⁾

Jaarsma는 Instruction과 Discipline의 核心的인 作用에 對해 Instruction을 통해 教師는 兒童의 思考를, 그리고 Discipline을 통해서는 教師는 兒童의 意志를 바로 이끌어 兒童의 全人格이 올바른 目標에 到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Jaarsma의 말을 直接들어 보자:

“In instruction, we direct ourselves to the thinking of the child; in discipline to the willing...we are so to instruct and discipline the child in the child-like way, according to God-ordained ways of child-like, that the right end be reached in his total personality.”⁴¹⁾

36) *Ibid.*, p. 64 : “...to bring the child to the point where he no longer requires discipline by others, and where self-discipline will enable the child to be his own guide.”

37) *Ibid.*

38) *Ibid.* : “Discipline is a means... and the only means of education if the word of discipline is rightly understood, something wholly different from what is usually designated as a ‘disciplinary measure?’”

39) *Ibid.*

40) Jaarsma, C., 1953,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k*,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405 : “The implication seems to mean directing to the right end.”

41) *Ibid.*

Jaarsma는 Discipline이 教授-學習過程에 있어서 不可缺한 要因임을 強調한다. Jaarsma는 “마땅히 行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란 잠언 22 : 6을 들어 어린이에 對한 Discipline의 必要性을 力說한다. 여기 “行할 길”이란 Jaarsma에 依하면 어린이에게 適當한 行爲의 規範이요 또한 그에 對한 가르침이 志向해야할 目標이다. 따라서 Discipline은 하나님이 賦與한 兒童의 心身 全局面의 特性에 相當하도록 知的으로, 社會的으로, 道德的으로 그를 指導(Guide, direct)하여 바른 目標에 到達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Discipline이 兒童에게 成就시켜야할 目標은 무엇인가? Jaarsma에 依하면 Discipline이 志向하는 窮局的目標은 兒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順從(롬 1 : 5)케 하는데 있다.⁴²⁾ 이 새로운 順從은 그리스도안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對한 사랑과 이웃에 對한 사랑으로 表現된다. 바꾸어말하면 Discipline에 依해 成就되어야할 窮局的인 目標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至上命수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⁴³⁾ 고 하신 誠命을 지키는 人格者를 養成하는 일이다. 사랑(하나님과 이웃에 對한)은 Discipline의 窮局的인 目標로 뿐만 아니라 이 Discipline 行使의 動因으로서도 또한 重要하다. 教育的 Discipline은 兒童으로 하여금 그 言動은 社會的, 道德的 規範에 맞도록 選擇하고 表現하여, 教育의 場에 連繫되는 當事者들 사이에 人格的關係가 維持되고 教授-學習의 霧圍氣와 過程에 社會的法秩序가 造成되고 堅持될 수 있도록 사랑의 動機에서 兒童을 規制하고 바르게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이 없는 Discipline은 橫暴가 된다. 또 Discipline이 없는 사랑은 放縱을 誘發한다. 그러므로 教育에 있어서 Discipline은 언제나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사랑의 表現이어야 하고, 또 사랑은 節度있는 Discipline의 表現이어야 한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한다. 勸戒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勸戒(Love in discipline and discipline in love)는 그에 依해서 모든 教授-學習의 活動이나 霧圍氣가 維持되어야할 最高의 原理라 할 수 있다.

勸戒(Discipline)에는 두 局面이 있다. 그것은 豫防的勸戒(Preventive discipline)와 治療的(矯正的)勸戒이다. 豫防的 勸戒는 文字 그대로 治療的(矯正的) 勸戒의 必要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希望에서 行使되는 勸戒요, 治療的(矯正的) 勸戒는 豫防的勸戒가 加해지지 않았거나 不適切하여 나타난 教育的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든 要素들을 治療하고 矯正할 希望에서 行使되는 勸戒이다. 兒童(人間)의 本性에 비추어 教授-學習의 霧圍氣와 過程을 참으로 教育的인 것으로 維持하려면 이 兩者는 언제나 適切하고도 眞摯하게 行使되어야 한다. 그릇된 思考나 言動은 適切한 Discipline의 行使로 豫防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豫防的勸戒의 缺하나 失敗에서 비롯되는 그릇된 思考나 言動도 빨리 治療되고 矯正되어야 한다.

治療的(矯正的) 勸戒에 있어서 때로는 구중 뿐 아니라 체적形態의 體罰의 必要性도 拾頭되

42) *Ibid.*, p. 406

43) 마 22 : 37, 39

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現今의 放慢스러운 家庭과 社會와 심지어는 學校教室의 一般的風土속에서 채찍질까지도 嫌惡꺼리로 여겨져 一般的으로 禁止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런데 채찍질이나 多少 激한 꾸중까지도 家庭이나 學級の 雰圍氣의 安定을 파괴하고 兒童의 性品이나 行爲까지 亡치우는 等의 모든 犧牲을 甘受하면서까지 絶對로 避해야 하는지는 疑問이 아닐수 없다. 바람직스러운 家庭, 學級の 雰圍氣와 學習者의 温當한 性品이나 凡節은 어떻게 해서라도 發展시키고 持續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教授-學習이나 養育의 教育的인 效率을 振作시켜야 하고 學習者를 適應力과 節度와 調和를 갖춘 円熟한 人格者로 形成, 發達되도록 最善의 配慮가 傾注되어야 한다. “良藥은 口에 쓰다”는 우리 俗談은 教育的채찍의 價値에도 適用되는 眞理이다. 채찍질은 받는 兒童에게는 勿論 加하는 父母나 教師에게도 嫌惡스러운 것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바르게 加해지는 사랑의 채찍은 疾患(精神的, 行爲的)을 治癒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Berkhof는 채찍의 訓戒를 野蠻行爲라고 規定하는 事例를 病든 感想主義(Sickly sentimentalism)라고 非難한다. 그는 비뚤어진 子息들에게 부드러운 꾸중을 加하는 것으로 滿足하고 懲戒를 加하지 않은 Eli의 이야기를 警告의 標本으로 提示한다. Berkhof는 우리에게 잠언에 記錄된 智慧者의 다음 말들에 귀를 기울이도록 促求한다.⁴⁴⁾

잠언13:24: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질히 징계하느니라.”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13,14: “아이를 혼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찌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Berkhof는 “이것이 솔로몬의 時代에 眞理이었을진데 오늘에도 變함없는 眞理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本性은 언제나 어디서나 同一하기 때문이다.” (“If this was true in the days of Solomon, it is just as true today, for human nature is the same whenever and wherever you may find it.”)라고 宣言한다.⁴⁵⁾

IV - 4 權 戒(Authority)

現代社會 및 現代教育의 一般的인 風土와 趨勢속에서 權戒(Authority)란말 그 自體나 概念은 Discipline의 그것만큼이나 疏外되고 嫌惡되는 局面이다. Discipline이나 Authority는 이들 낱말 그自體가 示唆하듯이 自由(Freedom)와는 相反되는 意味(Implication)를 內包하고 있는바, 이 兩者는 모두 人間의 自由의 行使를 制約하고 이끌어(Direct) 우리의 社會生活의

44) Berkhof, L., 1953, “The Christian School and Authority,” in Jaarsm,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 99

45) *Ibid.*

人間關係(Interpersonal relationship)에 있어서 法과 秩序를 維持할 것을 主된 關心事로 삼고 있다. 그러나 Discipline과 Authority는 우리의 社會生活에 있어서나 個人과 個人間의 社會的相互作用에 依해 展開되는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 自由와 마찬가지로 必順不可缺하다. 이三者中에 어느 한 要素가 缺如되거나. 또는 이들 相互間에 均衡이 깨어질 때에는 教育의 社會的秩序에 異常이 惹起되고 個人의 精神狀態에 不安이 造成되는 것이다.

權威의 本質은 여러 次元에서 생각될 수 있다. 우선, 權威의 概念은 社會統制(Social control)의 意味와 關連해서 생각할 수 있다. “權威의 概念은 規律에 依해 統制된 生의 形態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權威란 制定, 宣布되고 遵守되어 維持되어야 할 規範的秩序 또는 命令을 前提로 한다. 國會議員, 判事, 審判(運動競技等의), 軍의 指揮官, 警察官等은 權威를 象徵하고 代表하는 典型的인 人物들이다.”⁴⁶⁾ 이들은 法, 規定, 規則(律), 條例等を 制定하여 公布하기도 하고, 이들을 特定事例에 適用하여 執行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正當하게 施行되고 遵守되도록 하게하는 權限(權威)을 賦與받은(Authorized)者들이다. Authority의 이러한 局面은 規範(norm)이나 法이나 規則等を 制定하고 이들을 特定事例들에 適用하여 執行하는 權限이 주어진 特別한 사람들(Authorized people)이 作用하는 立法機關이나 軍이나 警察等과 같은 機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一般國民으로부터 特殊한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者들로서 一般的으로 凡人들이 할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分野의 일들에 對해 特別하고도 非凡한 洞察力과 力量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形態의 權威는 그 制定者인 立法機關이나 執行者인 警察等에 依해 代表되는바 이는 國家로부터, 그리고 民主主義의 으로 말하면, 國民으로부터 비롯된다. 勿論, 그 窮局的根源은 聖經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롬13:1) 하나님이다.

이러한 權威는 社會正義와 秩序를 確立하고 維持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또 이에 壽與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國家社會와 市民個人들의 安寧과 福祉를 增進하는데 壽與한다. 이러한 權威는 이에 依한 社會統制(Social control)를 通하여 社會正義와 秩序를 確立하고 維持하도록 하기 爲해 그 社會成員들로부터의 服從을 前提로 한다. 이 權威는 服從을 條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本質的으로 強制性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이 權威에 服從치 않을 때에는 法的制裁와 함께 社會的制裁를 받게 된다.

法的權威(Legal authority)인 形式的社會統制(Formal social control)와 함께 社會統制의 領域에 있어서의 權威의 行使에는 非形式的社會統制는 傳統이나 因習이나 慣行等과 같은 一般的인 社會規範을 말한다. 이는 한 時代와 社會가 承認하는 常識的範疇 안에서 維持하려는 秩序의 基準으로서 社會成員들에 依해 暗暗裡에(Implicitly) 採擇된 社會規範(Social norm)인바 個人이나 集團의 生活樣式과 行爲凡節과 倫理水準을 規定하는 一種의 社會契約(Social contract)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非形式的社會統제도 社會成員들의 服從(Conformation)을 前提하긴 하지만 形式的統制처럼 強制的인 것은 아니다. 이에 服從치 않을 때에는 形式的社

46) Peters, R. S., 1970,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ion Ltd., p. 238

會統制의 境遇처럼 嚴重한 法的制裁를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當代 當社會의 文化的, 道德的基準에 따라 그 社會와 社會成員들에 의해 承認되고 賦課된 어떠한 規制力이 作用한다. 이 規制力(社會的權威 - Social authority)은 個人的 常識과 社會 - 倫理的意識과 良心에 不斷히 命令하고 呼訴한다. 健全한 社會風土의 創造와 維持를 爲해서는 이러한 社會的 規範(權威)에의 遵守도 形式的社會統制(法的權威)에의 그것 못지 않게 重要함은 勿論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社會的權威는 當代의 一般的인 社會 - 文化的價値觀과 基準에 의해 承認되고 尊重된다.

權威의 概念은 社會統制의 領域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學問의 諸領域과 藝術의 諸分野에 있어서도 이 말을 쓴다. 卽, 哲學의 權威, 音樂의 權威 등이 그것이다. 어느 專門領域에 있어서 權威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그 領域에 對한 自身の 特別한 研磨와 洞察力과 力量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領域에서 期待되는 가장 높은 水準의 知識과 技能 등을 가지고 該分野에 關한 自身の 識見과 能力을 他人에게 發揮하는 權利가 賦與된 專門家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權威에는 社會統制의 意味를 갖는 權威와는 달리 法과 規定 등을 制定, 宣布하고 特定事例들에 適用하고 執行하며 이에의 服從을 強要할 수 있는 規範이나 制裁力이 없을 뿐 아니라 個人的 常識이나 社會 - 道德的意識이나 良心에 命令하고 呼訴하는 拘束力도 없다. 學問이나 藝術分野에서 權威로 認定되고 있는 사람들의 權威는 그들의 그 分野에 對한 特別한 研磨와 이에서 얻어지는 能力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또한 이에 對한 一般的인 公認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이 權威는 恒之的인 것이 아니라 暫定的인 것으로서 그 權威의 根據와 證據를 不斷히 提示해야 할 排戰에 恒常 直面해 있다.⁴⁷⁾

教育者의 權威는 위에 들은 兩局面의 意味를 함께 包含하고 있다. 父母나 教師는 가르치 者로서 必要에 따라 國家와 社會와 教育規例가 認定하고 當代의 法, 秩序와 文化的, 道德的, 宗教的 常識과 良心이 許容하는 範圍 안에서 兒童學生들에게 法, 規則 등을 制定, 宣布하여 特定事例에 適用, 執行할 수 있고 이에 對한 服從을 命令할 수 있도록 權威를 賦與받은 者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家庭과 地域社會(좁은 意味의 家庭이나 넓은 意味의 國家社會)를 爲해 兒童을 遂行하도록 權威의 자리에 놓여진 者들이요, 그들의 家庭과 學校에 法, 秩序가 維持되고 그리하여 그 家庭과 學校社會의 福祉가 增進되도록 必要한 (社會)統制를 加할수 있는 權利를 賦與받은 者들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地域社會의 文化的 權威로서 이 文化傳統을 保存하고 醇化하여 後世에 傳達하도록 權威를 賦與받고(Authorized) 있는 것이다. 그들은 兒童들의 發達特性을 理解하고 行爲를 指導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傳授하고 닦아주는 知識과 技能方面에 있어서 權威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期持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教師에 對해 말할진대, 그는 特殊한 訓練을 쌓은 有能한 專門家로서 그에게 맡겨진 兒童學生들의 發達 全局面에 對한 理解와 指導에 權威와 責任이 있는 者인 것이다.

教育者에게 賦與된 權威는 被教育者들에 對한 그들의 Discipline의 根據가 된다. 바꾸어 말

47) Ibid., pp. 239~240

하면 가르치는 者에게 固有한 이 權威가 賦與되지 않거나 또는 喪失될때 그는 兒童學生에게 바른 Discipline을 加할수 있는 根據를 喪失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에 있어서 가르치는 者의 權威의 喪失은 곧 그의 兒童學生에 對한 Discipline權의 喪失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權威의 不在는 곧 教育의 不在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現代 家庭教育과 學校教育이 얕고 있는 疾患의 根源을 現代社會文化風土의 一般的인 弛緩現狀으로 말미암은 權威의 失墜라는 側面에서 診斷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教育的狀況에 있어서의 權威의 問題가 지닌 가장 重要한 局面은 무엇인가? 權威는 教育者 自身들과 兒童들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兒童學生自身들 사이에 있어서 바람직한 人格의, 社會的關係를 造成하고 維持하는데 行使되어야 한다. 이 權威의 目的은 但只 教授 - 學習 過程에 있어서의 法, 秩序의 維持나 그 結果로 나타나는 社會的, 心理的安定性的의 保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權威의 窮局의 目的은 兒童學生들에게 養育과 教授의 責任이 있는 그들의 父母나 教師에 對해 尊敬하고 順從하는 態度를 助長해 줄 뿐 아니라 教育者(父母, 教師)에게 그들이 委任받은 어린이들을 人格體로, 그리고 하나님의 形象(을 지닌 者)으로 알아 그들 人間性的의 尊嚴性에 눈을 뜨고 敬畏의 態度를 갖고 그들을 對할수 있도록 促求하는데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 때 이는 單純한 權威가 아니다. 이 權威는 모든 形態의 權威들의 最高의 規範이다. 이러한 權威가 保障될때, 그리고 이러한 權威가 保障되는 곳에서 비로소 바람직한 人間對人間의 人格的關係는 教育의 社會的, 精神的風土를 支配하게 될 것이다. 權威가 但只 하나의 強制性을 띤 拘束的인 影響力으로 머무를때 이 權威는 教育者를 橫暴스럽게 하고 또 學生을 두려움과 움추림과 露骨的인 反발상태로 몰아넣거나 或 그렇지 않으면 위장된 服從의 狀態로 몰아 넣는 結果를 낳게 한다.

聖經的權威는 사랑에서 일어나오는 權威이다. 權威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Heart of love)에서 일어나오는 것이 아닌限 教育的인 것이 될 수 없고 이는 教授 - 學習의 過程뿐 아니라 學習者의 性품을 亡치게 된다. Discipline에 對해 말했던 眞理가 Authority에 對해서도 그대로 適用된다. 卽, 權威의 사람과 사랑의 權威(Love in authority and authority in love)를 말한다. 權威있는(Authoritative) 父母나 教師는 어떠한 狀況에서라도 참된 사랑으로 그들의 任務를 履行하지만 專制的인(Authoritarian) 父母나 教師는 거짓 威勢를 假裝하여 어린이들을 對한다. 사랑의 動機에 의해 움직이는 착한 教育者는 權威를 濫用치 않을 것이며 또한 權威의 行使가 必要할 때와 場所에서 이의 行使에 吝嗇하지도 않을 것이다.

權威에 對한 論議를 맺으면서 이의 根源에 對해 簡略하게 考慮해 보고자 한다. 이에 對해서는 이미 父母와 教師의 教育的役割에 關한 論議에서 言及한 바 있는 줄 안다.

“世俗教育者들은 權威의 源泉으로 國家나 父母를 내세우고 Catholic에서는 教會를 내세운다.

48) Byrne, *op. cit.*, p. 131: "Secular educators posit the source of authority either in the state or the parents, Catholics posit it in the Church. The true Christian educator, however, believes that the source of all authority lies in God."

그러나 참된 基督教教育者는 모든 權威의 根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⁴⁹⁾ 라고 Byrne教授는 말한다. 聖經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權勢들에게 屈服하라. 權勢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權勢는 다 하나님의 定하신 바라.”⁴⁹⁾ 고 分明히 밝히고 있다. 權威는 世上的인 意味에서 볼 때 때로는 다른 源泉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法的, 政治的權威는 國家로 부터(窮局的으로는 國民으로부터), 父母들의 權威는 父母自身들로부터(왜냐하면 父母들은 子女들을 直接 出産하고 生存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教師의 權威는 國家나 父母들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모든 權威의 窮局的인 源泉은 萬物의 創造者이고 統治者인 하나님께 있음을 聖經은 밝히고 있다. 예수께서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 Authority의 根源에 對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위에서 주지아니하셨더면 나를 쫓할 權勢가 없으리니...”⁵⁰⁾ 모든 權威-市民的(Civic)權威, 父母의 權威, 教師의 權威等-에 服從해야할 理由(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服從하라- 롬13:1)는 이들 權威가 하나님의 것(of God)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From God) 하나님을 爲한 것(For God)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權威에 對해서만 服從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制定, 許諾해주신 市民的(Civic)法, 秩序나 社會正義나, 社會的 個人的福祉나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나라까지도 파괴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權威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나 機關에 依해 行使되는 것이라 해도 이에 服從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權威는 聖經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權威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規範이나 權威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制定된 것일 때에 限해서만 拘束力을 갖는 것이다.

要컨데 이 權威의 窮局的인 目的은 市民的法, 秩序(Civic law and order)의 確立과 社會正義의 實現과 이 結果로 나타나는 社會的, 個人的福祉의 增進을 通하여 地上에 하나님의 나라를 擴張함으로써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는데 있는 것이다. 權威의 目的은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V. 結 語

가장 本質的인 意味에 있어서 教育은 어떠한 形態의 것이든 人間에 依해서 人間을 人間이 되게 하는 意圖인 行爲作用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 人間이 除外된 教育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教育이 人間을 等閑視하는 非人間化의 傾向으로 흐를때 그 教育은 그 本來的인 意味와 任務를 喪失하게 되는 것이다.

教育에 있어서의 人間對人間의 關係는 가르치는 者인 父母, 教師等과 배우는 者인 兒童學生과의 만남에서 形成된다. 父母나 教師가 지닌 固有한 가르침의 責任은 하나님으로부터 賦與받았다. 따라서 父母나 教師의 兒童學生에 對한 教育的使命은 極히 尊貴하고 所重한 것이

49) 롬13:1

50) 요19:11

아닐 수 없다. 참된 使命感을 가지고 어린이를 對하고 가르칠때 하나님께서는 聖靈으로 함께 하심으로 重生된 溫全한 人格의 形成이라고하는 教育의 窮極的 目標는 達成되는 것이다.

教育의 이러한 目的을 達成키 爲해 모든 教育行爲나 過程은 可能的 모든 方便을 通해 그 效率를 振作하지 않으면 안된다. 環境與件이나 教授-學習運動方法의 改善等 모든 配慮와 措處가 講究되어야 한다. 이러한 教育의 要件들은 무엇보다도 人間的要素를 核心으로 하고 있다. 人間對人間 即,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사이에 바람직한 人格的, 社會的 關係가 缺如되는 限 環境與件이나 教授-學習方法의 改善은 期待될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環境風土나 教授-學習의 過程이, 即, 가장 効率的인 教育的狀況이 가장 바람직한 教育者對教育者間의 人格的, 社會的關係에서 비롯됨은 教育이 곧 이들 兩者의 맞남의 關係에서 展開되는 行爲作用이기 때문이다.

自由와 勸戒와 權威는 教育의 核心인 教育者對被教育者의 人格的, 社會的關係와 教育過程의 一般的風土를 規定하는 要素들이다. 그 어느 하나도 等閑視되어서는 안된다. 教育狀況이 秩序와 安定을 維持하고 教育者와 被教育者가 心理的平溫을 얻어 教育의 成果를 增大하려면 이들 三者는 언제나 均衡, 調和를 保障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行使에는 節制와 責任과 사랑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節制와 責任이 缺如된 自由의 行使, 그리고 사랑의 動機를 缺如한 節制없는 勸戒와 權威의 濫用은 教育의 過程은 勿論 가르치는 者와 배우는 者를 亡치운다. 教育이 참으로 成功을 거둘려면 節制와 責任이 앞서는 自由와, 그리고 動機에 바탕을 둔 勸戒와 權威, 이 三者는 언제나 均衡과 調和를 維持해야 한다.

VI. 參考文獻

Bantock, G. H., 1970. *Freedom and Authority in Education*, London. Farber & Farber Ltd

Berkhof, L., "The Christian School and Authority," in Jaarsma,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 CO.

Byrne, H. W., 1977.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rd, Michigan, Mott Media.

De Graaf, A.,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Hylkema, G. W., 1953. "The Great Office of Teachers in Preparing the Child for the Complete Life," in Jaarsma,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Jaarsma, C., 1935.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 1961.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eters, R. S., 1970.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ion Ltd.

Waterink, J., 1954.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 1958. *Theorie der Opvoeding*, Kampen, Y. H. Kok N. V., p. 11~21; 1961. *Keuruit de verspreide geschriften*, Groningen, J. B. Walters, p. 1~30

Quoted and remarked in De Graaf,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信者の 内面省察의 當爲性에 관한 성경적 한 考察

— πνεύματι περιπατεῖτε의 이해 —

金 亨 奎*

◇ 목 차 ◇

서 언

- I. 본문의 이해
 - II. 성령안에서 개인의 갈등
 - 1) 육체의 욕심
 - 2) 몸
 - 3) 사단
 - 4) 하나님의 훈련방법
 - III. 신자의 자유와 속박
 - 1) 자유
 - 2) 속박
 - IV. 율법주의와 방종의 경향
- 결 어

서 언

바울의 서신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 : 16 πνεύματι περιπατεῖτε를 한국어 개역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은 신자들의 모든 생활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한국어 번역은 현대에서는 비교적 적게 쓰이는 표현인 “~을 좇아 행하라”는 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번역의 내용이 본래의 뜻을 잘 담고 있지않기 때문

* 조교수